“불교의식 영산재, 이제 시민과 함께 해요”

전통불교영산회, 해설 곁들인 영산작법 시연회 눈길

도심에서 시민들을 위해 해설을 곁들인 영산의식이 펼쳐져 화제다.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18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전통불교영산작법 시연회’를 갖고 영산작법에 광주만의 특색이 가미된 의식을 선보였다.

영산작법이란 영산재(靈山齋)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법회장면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띤다. 영산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지내는 49재(四十九齋)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전통 재현 차원에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식에는 3시간 가까이 50여 명의 회원 스님들이 출연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선보였다.

올해 9회째 진행된 시연회는 범음에 혜령, 대광 스님, 바라에 호산 스님, 작법에 월인 스님 등 오랜기간 영산작법을 연구해 온 원로스님들이 직접 시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방불교대학 심만춘 학장이 시민들에게 영산작법의 각 부분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영산작법은 사찰에서 치는 대종(大鐘), 목어, 북을 치는 의식을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의식을 위해 야단법석이 마련되고, 의식도량을 상징화하기 위해 야외에 영산회상도를 내어 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하여 괘불 앞에서 찬불의식을 가졌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단을 세우는데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하단 등 삼단이 있다. 그 뒤 영혼을 모셔오는 시련(侍輦), 영가를 대접하는 대령, 영가가 생전에 지은 탐 · 진 · 치의 삼독의 의식을 씻어내는 의식인 관욕이 행해졌다. 그리고 공양드리기 전에 의식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을 한 다음 불보살에게 공양을 드리고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찬불의례가 뒤를 이었다. 이렇게 권공의식을 마치면 재를 치르는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게 되는 축원문이 낭독됐다.

10월 18일 광주 도심의 서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진 ‘전통불교 영산작법 시연회’

마지막으로 본의식이 끝나고 영산재에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하는 회향의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을 비롯해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시연회를 감상했다. 특히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과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연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 전통불교영산회는 지역 불교전통의식을 전수하며 이를 수행의 근간으로하는 승가단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인재불사의 원력으로 후학들을 교육 · 양성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불교영산회는 봉원사 영산작법 이일응 스님의 맥을 이어 1982년 창립됐다. 5 · 18민주항쟁 희생자위령대재를 30년 넘게 봉행해오고 있으며 종교음악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위령제, 백제불교최초 도래지 수륙대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 농민 · 노동자와 함께 통일쌀 벼베기 진행

“통일을 위한 곡식이 북녘 땅에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가 함께 경작한 통일쌀 벼베기 행사가 지난 10월 22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들녘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수된 쌀은 지난 6월 18일 스님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가 힘을 모아 심었던 통일모다. 이날 수확된 통일쌀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전해질 예정이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와 농민과 더불어 ‘통일경작단’을 구성하고, 화엄사 소유의 20,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통일쌀을 경작해 왔다. 지난 2007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상당의 통일쌀을 농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지원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4대 종단과 함께 ‘희망의 김장’ 협약

고창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종단 대표들이 모여 종교를 초월한 나눔 자원봉사봉사활동을 펼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원불교 양인경 교무, 천주교 백원철 총회장, 고창중앙교회 전종찬 목사 등 4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10월 18일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희망의 김장 담그기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를 초월한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 · 협력해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15~16일 이틀간 배추 2,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매년 겨울나기로 여러 기관 · 단체에서 김장을 실시하지만, 금년에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4대 종단과 협약을 맺고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4대 종단과 협력하여 나눔을 실천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쌓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제 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열려

태고종 제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에는 112명의 행자들이 계를 받았다.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은 10월 23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전계아사리 도산 스님, 교수아사리 혜공 스님(중앙종회의장 직무대행), 갈마아사리 운곡 스님(호법원장) 등 3사와 7증 스님이 증명한 가운데 제 38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주간의 합동 행자교육을 마친 112명(남행자 76명, 여행자 36명)의 행자가 사미 · 사미니계를 받았다.

수계식에 앞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계 후 태고종 스님으로써 본분을 지켜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무릇 출가자는 입지(入志, 뜻을 바로 세우다)를 세워야 하며, 뜻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중생들을 지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타종에 이어 종사이운(종정예하), 불교의례, 법어, 종사이운(삼화상 칠증사), 교육우수자 상장 수여가 진행된 후 수계의식이 봉행됐다.

이어 진행된 수계식은 출가 전 사바세계의 은혜와 부처님과 나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3배를 올리며 출가의식을 시작으로 사미, 사미니 10계를 지키겠다는 서약 의식이 진행됐다. 이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세속의 번뇌를 없애는 체발의식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도 바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인 연비의식, 그리고 홍가사를 수하는 정대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태고종은 선암사에서 진행한 행자교육을 통해 불공습의 대한 강연과 실습 등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남고사, ‘가을향기 담은 산사음악회’ 초연

전주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남고사의 음악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전주8경의 하나인 전주 남고사에서 처음으로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전주 남고사(주지 원혜)는 10월 18일 전주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가을향기를 담은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사음악회는 지역에서 유명한 ‘해질녘에 들리는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인 ‘남고모종’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찰보다 ‘남고사를 알리는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동서학동주민자치위원회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한누리클럽의 지원 하에 전주시립국악단 최명호, 장대환의 대금연주, 네잎클러버 밴드공연, 김일곤의 색소폰, 박숙희의 오카리나, 이화경교수의 시낭송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음악회에 앞서 원혜 스님은 남고산성 내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전주 팔경의 하나인 남고모종의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혜 스님은 “남고사의 산사음악회 개최를 여러번 기획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던 중 지역주민과 함께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열게 됐다.” 며 “남고사는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절이며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산재해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남고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 전주를 지켜온 남고산성과 그 안의 많은 문화재를 알리고 한옥마을과 무형문화유산원과 함께 명품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음악회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한 ‘화엄음악제 2013’

지리산 골짜기의 아름다운 음악제 ‘화엄음악제’가 10월 19일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 각황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한 ‘화엄음악제 2013’는 ‘첫 번째 빛’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영적지도자와 음악인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부대행사인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많은 외국인과 음악인들이 사찰문화체험과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제목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었던 지두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의 "스스로에게 빛이 돼야 한다.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한다(En-light-ened-This light in Oneself)"는 말에서 인용된 주제이기도 하다.

올해는 기존 화엄사영성음악회의 명칭을 화엄음악제로 간소화하고, 지금까지 음악감독의 역할을 맡아 참가해 왔던 '원일'이 총감독을 맡았다. 원일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작곡가, 지휘자, 연주가 등 다양한 음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사는 톡특한 음색으로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는 최고은의 노래를 시작으로 '소리의 생태학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며 소리를 연구하는 ECM레이블의 아티스트 '스테판 미쿠스'가 출연했다. 이 외에도 정재일, 카입(Kayip), 정가악회, 원일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2006년 '첫 발자국'을 주제로 시작된 '화엄국제영성음악제'는 이후 길떠남(2007), 길눈 뜨다(2008), 길을 묻다(2009), 길동무(2010), 기쁨마중(2011), 내려놓으니 아름답다(2012) 등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 임명장, 사찰등록증, 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